

# 광양제철소, 철강업계 첫 '격주 주4일 근무제' 전환

### 오늘부터 월~금 9시간 근무...첫 격주 금요일 휴무 2월 2일 협력업체 등 다른 계열사들도 근무 형태 바꾸기 위한 논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2일부터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4일제 근무제로 전환한다. 19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작년 11월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격주 4일 근무제 도입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제 확대를 통한 직원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및 재충전 기회 제공 및 행복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해 새해 초 1월부터 근로자 격주 주4일 근무제에 들어간다.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월 2일이다. 앞서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1월 16일부터는 상주 근무자의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올해 신설되는 '격주 4 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



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힌 것이 핵심이다. 광양제철소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했으며, 오는 22일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으로 1시간이 더 늘어나고, 금요일은 격주로 8시간 근무 및 휴무하게 된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

은 직장'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라며 "약 1만여 명의 포스코 상주 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 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 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주4일제를 도입함에 따라 협력업체 등 다른 계열사들도 근무 형태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 구청장협의회 "영호남 숙원사업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급"...에타 면제 촉구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해 8월 22일 공동발의했다"며 "동서간의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산물로 남부경제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치권 일부의 논쟁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반대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달빛철도 건설은 영호남 상생·화합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특별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대사업을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에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형택 기자

## '귀농어촌 1번지' 전남도 어울림마을 26곳 뽑았다

전남도가 귀농어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에 15개 시·군 26개 마을을 선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귀농어촌인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마을 내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경관 조성 및 재능기부, 마을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7개 마을이 신청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마을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실시, 나주·장흥·완도 각 3개 마을, 담양·고흥·보성·화순·영광 각 2개 마을, 순천·광양·곡성·영암·장성·진도·신안 각 1개 마을을 선정했다.

도는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와 꽃 구입비와 재능기부를 활용한 벽화 그리기, 서예활동, 약기 배우기 등 주민융화프로그램 진행비 명목으로 마을당 1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귀농어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되며, 귀농어촌인의 소속감을 증진시켜 역기능 방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 마을의 만족도 조사와 귀농어촌인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슬비 기자

## 전남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호평... "지역민들 속내 털어놔"



전남대학교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로 지역민의 생활고충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9일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에 따르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법무법인 법승에서 활동 중인 송지영·임대현 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15일 완도 신지면에서 지역민 무료 법률상담에 나섰다. 상담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규모지만 법률 지식이 없어 오랫동안 속

앓이를 해왔던 내용이 대부분으로, 지역민들은 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답답하고 억울했던 속내를 털어내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공사현장에서 밥값을 받지 못한 식당 아주머니의 사연 ▲개인 상수도관을 매설하려는데 통과해야 할 사유지의 동의를 못 받은 이야기 ▲농지 진입로 사용료 30만 원을 줬는데도 10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부의 사연 ▲상인회 회계 처리 미숙으로 30만 원을 채워 넣었는

데, 2년 뒤에 느닷없이 고발당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남대는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됐던 법률상담서비스를 재정비, 법률 인프라가 취약한 곳의 수요를 발굴하는 등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 등 공익소송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남대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신안군 지도읍사무소에서 2차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상담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변용일 기자

## 원자력발전소 품은 지자체들 "지원금 단가 인상 요구" 한목소리

### 영광서 원전 소재 5개 시·군 공동발전협의회 개최



원자력발전소를 품은 전국 시·군 지자체들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단가 인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영광군의회는 전남 청사 회의실에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열어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 지급 방식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울진군 등 5개 시·군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영광군에서 열린 올해 상반기 회의에선 '원자력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 표준' 변경안 건의 등을 결의했다. 기장군의회는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 용량'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해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개편을 촉구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다뤘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원전특별위원회)이 대책안으로 제안한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인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0.5원으로 인상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울진군의회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위원회 성격을 '협의'에서 '심의'로 변경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키로 결의했다.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앞으로도 원전 관련 개선 사항을 지속 건의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First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분위	125,531원	79,147원	48,103원
3분위	79,147원	48,103원	26,697원
2분위	48,103원	26,697원	
1분위	26,697원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괄 129

국민건강보험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